

## 현대장신구를 보는 눈

허보운 \_ 공예/디자인 이론

현대장신구는 ‘장식’과 ‘표현’ 사이에서 부유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장신구가 ‘장식’의 일부였고, 신분과 부를 드러내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상업장신구는 ‘장식’의 역할에 충실하다. 그러나 현대장신구 작가들은 그러한 전통적 ‘장식’ 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에 몰두해왔다. 그들은 대개 장신구가 가진 일반적인 규범을 벗어남으로써 관습적 장식성을 탈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크기, 재료, 기법, 상징 등을 매개로 한 일탈을 실험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감행한다. 그럼으로써 현대장신구는 그것 자체만으로 완전한 조각품이 되기도 한다. 작가들은 장신구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개인적인 ‘표현’을 신는다. 자신이 만든 장신구를 설명할 때에도 ‘표현’의 대상이나 요소에 집중한다. ‘표현’은 ‘장식’의 한계를 뛰어넘은 작가의 자유를 상징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장신구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준다.

그런데, 장신구가 조각품이 되는 일, 즉 장신구를 장신구로 한계 짓는 규범들을 벗어던지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장신구이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장식’의 규범이 사라진 장신구는 더 이상 장신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식성은 장신구의 장르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장신구 작업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전제이다. 그러므로 ‘표현’에 골몰하여 이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물을 장신구로 범주화하기 어렵다. 그러한 맥락에서 장신구의 성립요건인 ‘장식’의 개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식’은 언제나 ‘배경’ 혹은 ‘바탕’을 필요로 한다. 장식적 사물은 그 자체만으로 결코 온전할 수 없다. 배경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장식의 숙명이다. 바탕이나 주변과의 관련 즉 ‘맥락context’을 통해 장식의 의미는 증폭된다. 배경과 관련을 맺는 과정을 거쳐 장식적 사물은 독립적 사물이 닿을 수 없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장신구가 기대고 있는 배경은 인간의 ‘몸’이다. 즉, 장신구는 인간의 몸을 바탕으로 하는 사물인 셈이다. 장신구가 몸과 분리되어 전시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장신구를 감상하면서 언제나 몸을 상정한다. 그러므로 ‘장식’ 개념의 포기는 그동안 장신구가 의지해왔던 ‘몸’이라는 배경과의 관계, 신체라는 맥락을 절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몸과의 연관관계는 사물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옷을 비롯한 다양한 사물들이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사용된다. 그러나 장신구가 내포한 몸과의 연관관계는 다른 경우와 다르다. 장신구는 ‘장식’의 맥락에서 배경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몸과 직접 맞닿아 있다. 그에 반해 다른 사물들은 ‘기능’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몸과 연관된다. 손기술의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서 공예의 한 분야로 지칭되지만, 실상 장신구는 ‘장식’이기 때문에 다른 공예분야보다 물리적 기능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표현’의 가능성을 더 넓게 펼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식’은 ‘표현’의 걸림돌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다. 이는 장신구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는 장신구로 ‘장식’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 과거에는 주로 신분이나 계급을 ‘표현’하는 일에 장신구가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훨씬 다양한 정체성들이 장신구를 통해 발산된다. 결국 몸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장신구의 ‘장식’적 특징은 ‘표현’의 한계이자 ‘표현’의 가능성이기도 한 것이다.

〈장신구상JewelryConception〉은, 한국에서 장신구의 새로운 표현가능성 제시를 목표로 6인의 장신구작가가 모여 만든 전시그룹이다. 2001년 〈장신구제안Jewelry Suggestion〉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2007년 〈장신구상〉으로 개명하면서 ‘표현’의 문제를 보다 더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4회의 신작전新作展을 통해 보여준 〈장신구상〉의 미덕은, 표현적 창작성 자체보다 오히려 장신구 본연의 ‘장식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6인의 작가들이 그간 선보인, ‘장식’과 ‘표현’을 공유한 다채로운 성격의 장신구들은 아방가르드적 ‘표현’이라기보다 본격적인 ‘장신구-성jewelry-ness’을 탐구하는 태도의 발현이었다.

그러한 성격은 이번 “경계를 넘어Crossing the Border”전에 초대된 외국작가의 면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들의 장신구는 이야기narrative를 담고 있고, 은유나 상징으로 읽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들 모두 장신구를 장신구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매우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다. 장식의 개념은 물론 기술성이나 물질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은 밀도 높은 작품들이 스스로 장신구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이들의 장신구는 하나의 사물로서 갖추고 있는 미적 요소뿐 아니라, 인간의 몸과 상응하며 의미를 방사하는 장신구만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신구의 전통적인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장신구라 불려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무엇을 기대하는 관객들에게는 〈장신구상〉전이 갑갑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아방가르드 개념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미술의 시각으로 보면, 〈장신구상〉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표현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맥락의 사물’이라는 ‘장신구-성jewelry-ness’을 담지한 장신구 본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번 국제교류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그동안 시도한 변화에 훨씬 크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12명의 작가들은 모두 ‘장신구-성jewelry-ness’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장신구는 착용하는 순간, 더 의미 있게 빛을 발할 것이다.

## Contemplating Contemporary Jewelry

Her, Boyoon \_ Craft/Design Critic

Contemporary jewelry drifts between 'ornament' and 'expression.' Historically, regardless of their culture, people adopted jewelry to display social class and wealth. Even today, most commercial jewelry faithfully plays its traditional role in society as 'ornament.' However, contemporary jewelry artists have been striving to escape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jewelry as ornament by abandoning the general norms that jewelry follows. They challenge various aspects of jewelry such as size, material, technique, and metaphor, so provocatively

that jewelry often becomes an independent sculpture. Jewelry now contains an artist's intention and conveys a personal 'expression,' so subjects or elements of expression become the essence of their creation. This symbolizes the liberation of artists who overcome the limit of 'adornment,' in this aspect expression also extends the potential of jewelry.

Nevertheless, to become an independent artwork by abolishing all the rules of traditional jewelry might as well be to reject or give up being jewelry. Jewelry separated from its ornamental role is no longer jewelry. Being an ornament is what distinguishes this genre from others, and it is on this premise that jewelry acquires its value and meaning. Considering this fundamental principle, the concept of 'ornament' should not be sacrificed and is worth discussing further.

Ornamental objects are incomplete by themselves. They are destined to depend on other objects or space. It is the context, the relationship with their setting, where ornamental objects complete their existence in a distinctive way from other independent objects. The context for jewelry is within its relationship with the human body. Therefore the abandonment of being an ornament severs the relationship with the body which jewelry has depended on.

Indeed the whole artificial world relates to the human body. Various objects are used by and arranged around us, but the way that jewelry relates to the body is unique. Within the context of 'adornment,' jewelry ha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body while other objects relate through the rather conceptual context of 'function.' Being ornamental, jewelry is free from specific function compared to other craft fields and can adopt a wider possibility of expression. The fact that jewelry is an ornament is not an obstacle but a door to possibilities, and this applies equally to the wearers as well. By adorning with jewelry, wearers express themselves. Traditionally jewelry was used to mark social class or status, but today a much wider spectrum of identities is projected through jewelry. The characteristic of jewelry that it can not exist apart from the body is setting limits but also offering broader potential for expression.

Jewelry Conception is a group of six Korean jewelry artists that began as Jewelry Suggestion in 2001, with the shared goal of suggesting new possibilities within contemporary jewelry. By changing the name to Jewelry Conception in 2007, the matter of expression was emphasized even more strongly by these six jewelry artists. However, the significance achieved through the last four exhibitions was not through creative expression itself; it was through the innovative ways that they exposed the essential nature of jewelry as ornament. The artists' diverse jewelry collections that address both 'ornament' and 'expression' were not what we would expect of avant-garde jewelry, but were the outcome of exploration of fundamental 'jewelryness'.

This 'jewelryness' can be found in the works by the international artists invited for the exhibition, "Crossing the Border." Though their jewelry plays with narrative and a variety of symbols and metaphors, these pieces highlight the intrinsic conditions of being jewelry on a superior level. These jewelry pieces, with an intense perfection of concept and craftsmanship, proudly present themselves as ornamental objects. They proclaim that jewelry not only has an aesthetic as an object but also involves a meaningful interrelationship with the body.

To viewers who expected to see work that is pushing the boundaries of jewelry, Jewelry Conception will feel confined or restrained. This exhibition may seem to hold a conservative stance compared to the view of contemporary fine art that regards the concept of avant-garde as the highest form. However, those who understand the essential nature of jewelry not just as a medium for expression, but also within its context, will have a deep appreciation for the journey which led to this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The twelve artists participating in "Crossing the Border" embody 'jewelryness' in their work intentionally and subconsciously.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meaning of these jewelry pieces will fully shine the moment they are worn.

translated by Yoon, Dukno / Metalsmith